

“제주시 읍면동 맞춤형 전략 필요”

제주연구원 인구 특성 반영한 특화 전략 연구 결과
인구 구조 변화 뚜렷… 외국인 늘고 고령인구 확대
인구감소 대응·정주기반 강화·지역활력 정책 제언

제주시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읍면동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제주시 읍면동 인구특성을 반영한 특화 발전 전략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제주시 총 인구는 50만3607명으로 2021년보다 3236명 감소했다. 더불어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가 7914명 줄어든 반면, 등록외국인은 4678명 늘면서 총인구 감소 폭보다 인구구성의 변화가 더 크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고령인구는 2021년 7만4054명에서 2025년 9만259명으로 늘었고, 고령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14.6%에서 17.9%로 확대됐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연구원은 제주시 지역 26개 읍면동의 인구구조

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제주시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시 읍면동 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으로는 ▷인구감소 대응 및 정주기반 강화 ▷생활인구 활용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권역 및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추진이 제시됐다.

동 지역의 경우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도심권은 원도심 재생과 노후 주거지 개선, 전통시장·역사문화자원 활용, 고령친화 생활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정주매력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도심권인 연동·노형동 등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고도화와 청

년·생산가능인구 정착기반 강화, 교통·주차·보행환경 개선 등 성장관리형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여건에 따라 다른 접근이 제안됐다. 동부읍면지역은 인구 순유입이 유지되고 있으나 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정주인구를 유지하고 생활서비스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부읍면지역은 생활인구와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주환경과 관광기능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서지역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복지·교통 등 기초 생활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주시 읍면동은 인구 규모, 연령구조, 순이동, 생활서비스 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시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 인구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지난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도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도 제공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의지가 토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

‘함께 이룬 광복, 함께 여는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경축식에는 위성곤 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익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유족,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독립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강상무, 고인석, 정희열, 한재월 씨 등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광복절 기념 모범학생인 제주제일고등학교 3학년 김기현 학생에게 제주도교육감 표창이 수여됐다.

위성곤 지사는 경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인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를 이어받아 후손들도 연대와 상생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이어 “제주는 1918년 무오병정사 항일운동부터 조천만 세운동, 제주해녀항일운동, 제주의 병운동까지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운 선조들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라며 “선조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은 오늘의 제주를 일군 힘이자,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516도로, ‘친환경 도로’로 탈바꿈

도, 내년까지 구간별 정비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516도로의 노후 포장 구간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구간별·연차별 포장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516도로의 포장 상태와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간별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516도로. 한라일보 DB

지난해 6월 서성로 입구 교차로~남서교 구간 포장 정비를 완료했고, 올해 8월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

로~수악교 구간에 대한 포장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숭터널~산록도로 입구 교차로 구간에 대해 포장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제주도는 516도로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구간인 만큼, 공사 추진에 앞서 행위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해 공사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 폭우로 곳곳 피해 발생… 4면 / 거문오름 ‘용암길’ 인기몰이… 5면

제주 출신 6명 독립유공자 포상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제주 출신 6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283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제주 출신 애국지사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故) 김창호·고원택·김서호·송태욱·양봉진·한봉삼 선생이다. 1930년대 일본 오사카에서 노조

활동을 하며 조선인 권리에 힘써온 한봉삼 선생과 김서호 선생에게는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또 오사카에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한 신사회 건설 운동에 참여했던 송태욱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더불어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김창호 선생과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한 고원택 선생,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제주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기도제를 올리다 일제에 체포된 양봉진 선생에게는 각각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양봉진 선생에 대한 포상은 후손에게 전수됐으나, 나머지 5명은 후손 확인이 어려워 전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이번 포상으로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는 231명이 됐다.

박소정기자

도민과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

40,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스포츠대축제가 제주에서 펼쳐집니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6. 9. 11. ~ 9. 16.
개회식 | 2026. 9. 11. 18:30 • 제주월드컵경기장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2026. 10. 16. ~ 10. 22.
개회식 | 2026. 10. 16. 17:30 • 제주월드컵경기장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